나주시 '맞춤형 복지시책' 본격 추진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
장애인 수당·아동 자립 수당 인상

나주시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민선8기 새로운 복지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나주시는 올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나주형 맞춤형 복지시책'과 국·도비 매칭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의 관절 건강과 식사·여가생활 편의를 위해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총 620곳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고 있다.

시비 9억29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 115곳에 보급을 마쳤으며 올해 200곳, 2024년 200곳, 사업 마지막 해인 2025년에 나머지 전체 경로당에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마을회관의 옥상 유무, 노후 상태에 따라 올해 100곳을 대상으로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폭염 예방 '쿨루프'(Cool Roof)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결한 노후 생활을 위한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는 기존 1인당 분기별 1만2000원에서 2만원(5000원권 4매)으로 대폭 상향해 연간 8만원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공공일자리와 더불어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차량 보호자 동승 조치 의무화에 따라 센터 차량에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부재 상황에 대비해 '나주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서비스'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 중인 가운데 7일 이내에서 특별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24시간 일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부모회의 난타 팀을 포함한 각종 행사 참여 지원, 보치아생활체육대회,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화합 행사도 새롭게 개최한다.

여기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 위험군 영유아의 발달·재활에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도 월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액 최대 32만1950원을 지급하며, 장애수당의 경우 재가 장애인은 월 6만원, 시설입소 장애인은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9세부터 64세 이하 여성 1인가구와 한부모 모자가정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위기탈출 안심 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안심홈 세트는 주거 보안을 위한 현관 CCTV, 비상벨로 구성됐다. 나주시가 설치와 운영 임대비용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기존 연 8만3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상향됐고 지원 기준 중위소득은 60%이하로 완화됐다. 국비 매칭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취학준비, 학습지원, 정서안정, 진로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유족에서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유족으로 확대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박차…토지 보상 착수

30만㎡ 2025년까지 446억 투입

화순군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선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말 토지 259필지와 수목, 묘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으며 다음달 초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 협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화순군이 지정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의 면적은 30만㎡(9만3000평)로 총사업비 44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다. 〈사진〉

기존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북동측 경계에 연접한 제2산단 부지에는 생물의약 특화업종인 의약품 의료물질,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특구로 지정된 기존 생물의약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병원, 의과대학 등을 연계해 바이오 클러스터와 메디컬 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R&D-시료생산-비임상-임상-제조까지 약을 연구하고 만드는 모든 단계를 진행한다. 메디컬 클러스터는 진단-치료-요양-의료 전문인력양성에 이르기까지 의료 활동이 가능하다. 화순군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백신산업특구로 확대지정하고 WHO 인력 양성 허브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와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가 지원

나주시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쌀 소비 감소, 쌀갑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농가에 경영안전대책비 15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벼 재배농가 불안감 해소,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48억원(도비 40%·시비 60%) 규모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전년 대비 약 12.5% 하락한 쌀 가격(4만6817원/20kg)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 현실을 감안해 지역 농업단체와 나주시, 시의회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함평군, 정신장애인들에 '마음허그 꾸러미' 전달

함평군이 재가 및 입원치료 정신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마음나눔, 마음허그 꾸러미' 사업을 실시했다. 군은 정신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부엽서, 떡국, 곰탕 밀키트 등이 담긴 위문품을 마련해 제공했다. 〈함평군 제공〉

장성군,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 상향

장성군이 새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첫째아 15일 서비스 이용 기준 가격이 19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 올라, 정부지원금도 119만 5000원으로 6만 7000원 인상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출산 순위, 서비스 이용일에 따라 41만 원부터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을 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1만 원씩 올랐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도 해당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위탁아동 가정이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정책팀(061-390-8363)으로 하면 된다./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이병노 군수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담양군이 최근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담양군의 기업친화적 지원정책을 홍보했다.

현재 관내에는 에코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무정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등 4개의 산업단지에 총 216개 업체(종업원 2216명)가 입주해 있으며, 산업단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입주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화재 시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공업시설의 특수함을 고려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했으며, 산단 종사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주택(94호)과 다양한 문화·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